

학교생활

## 학교 시험 시 수정 테이프 사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1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 학교 시험 시 답을 정정할 때 수정 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수정 테이프 사용을 금지해 OMR 카드를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험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데 답안지 교체까지 하게 되면 시간 압박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난 중간고사 때 막판에 답안지를 교체하면서 마킹을 다 못하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불상사가 있었거든요.

강선영(48·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 A OMR 카드 판독기에 따라, 학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다수 학교에서 OMR 카드에 수정 테이프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OMR 카드 판독기 성능에 따라 또는 인식 에러 등을 우려해 수정 테이프 사용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서울 중산고 박상훈 교사는 “OMR 카드 판독기에 따라 인식 방법에 차이가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 방식과 같은 스캔 방식의 OMR 카드 판독기는 OMR 카드 상태 그대로 인식하므로,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유의사항에도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해 채점하므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에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표시를 하면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흰색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 흰색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용문고 최낙원 교장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성적 관리 지침을 전달하지만, 수정 테이프 허용 여부 등 세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최근에는 수능 채점 방식의 판독기를 사용하는 학교가 많지만, 판독기의 성능을 떠나 학교가 수정 테이프 사용을 금지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전합니다. @

### MORE TIP

OMR 카드 판독기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검게 칠한 부분은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빛을 반사해 빛이 흡수된 부분을 판독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롯해 많은 학교가 OMR 카드를 이미지로 스캔하는 방식의 판독기를 사용합니다. 적성고사를 비롯해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대학에 따라서도 수정 테이프 허용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입시

## A 교과 전형 반영 여부는 대학마다 달라 대학별 '2022학년 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이수한 과목과 동일하게 평가되고 기록됩니다.

서울 동대부여고 김용진 교사는 “《화학실험》은 전문 교과 I에 해당하지만 일반고의 경우 전문 교과는 보통 교과 of 진로선택 과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생부에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기재된다. 3단계 성취도평가는 동일하다. 교과 전형 반영 여부와 반영 점수 산출 방법은 대학마다 달라 대학별로 2022학년 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2022학년 주요 대학 중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성취평가제인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건국대 숙명여대 등이며, 미반영 대학은 동국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입니다.

건국대의 경우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 교과 기준 성취도 상위 3과목만을 반영하고, 성균관대는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 과목은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해 반영합니다. 서강대의 경우 교과 성적 900점 중 등급 산정되는 과목의 배점은 800점, 성취도평가 과목 배점은 100점으로 반영 점수를 산출합니다. @

## 공동 교육과정 성적, 교과 전형에 포함되나요?

고2인 아이가 공동 교육과정 《화학실험》을 신청해 지금까지 몇 번 수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제가 너무 많고 수업 수준도 너무 높아 따라가기가 벅차다고 합니다. 교과 전형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공동 교육과정 수업 성적도 교과 전형 평가에 포함되나요? 수강 포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신미영(49·서울 강서구 등촌동)

### MORE TIP

공동 교육과정 수업은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이수 가능합니다. 미이수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경북 선택여고 류봉균 교사는 “3분의 1 미만 수강 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정 중심 평가여서 수강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과제 제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수강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담당 교사와 상담해볼 것을 권한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